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7과



보시

최근 우리나라에도 보시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기빙 엑스포(giving expo)가 열리기도 했다. 단순히 특정 한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키면 좋은 사회적 마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시는 사회학적으로 말하자면 나누어 쓰는 것이며, 분배를 통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끼리 혹은 생명체들이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시는 누가 특정한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들고 도는 사회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 베푸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단순한 '더불어 살의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생명의 일체화'를 위한 숭고한 도덕적 행위로 승화될 수 있다.

불교적 가르침에 의하면 보시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 평화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나누어 준다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유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내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

지는 것처럼 선남자 선여인이 보시를 하면功德도 넓어진다라는 것이다.

보시를 할 때는 무심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원을 세우고 보시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는 것이다. <증야합경>제19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보시할 때는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정성을 들이지 않고 원을 세우지도 않으며, 믿는 마음도 없으면 그 과보는 즐겁지 않느니라. 정성껏 마음을 쓰고 차별을 두지 않으며, 후세에 다리가 되겠다고 서원하면 그 과보는 훌륭하니라. 아득한 옛날 빌라마라는 법지가 팔만사천의 금은 등을 팔만사천의 미녀들에게 보시하였었다. 그러나 그런 보시는 집 한 칸을 지어 수행하는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 또한 한 사람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 못하다.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삼보에 귀의했다더도 스스로 5계를 수지하는 것만 못하다. 5계를 수지하더라도 짐사나마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가엾은 여기는 것만 못하느니라. 설사 그렇게 보시했다더도 일체의 존재는 무상하여 집착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못하니라"

이상의 가르침은 보시의 참다운 정신이 어디



벽산스님

(정음 다천사 조실)

다만 부처의 마음을 보아 스스로 귀의하라.

부안 내소사에 가련 선원으로 유명한 월명암이란 암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월명암에 얽힌 부설 거사(浮屠居士) 이야기를 할 것이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설 거사에게는 영조와 영인 스님이라는 도반이 있었습니다. 도를 닦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항상 함께 했습니다. 어느날 부설 거사는 영조, 영인 스님과 금강산으로 공부를 하러 가다가 묘화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설 거사는 묘화 부인과 지금의 월명암 자리에 토굴을 짓고 공부를 하였고 영조, 영인스님은 금강산으로 구도행을 떠났습니다. 부설 거사에게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등운과 월명이었습니다. 월명암이란 명칭은 월명(月明)이란 스님의 이름에서 따 온 것입니다.

10 년이란 세월이 흘러 금강산에서 공부하던 영조, 영인 스님이 돌아왔고, 세 사람은 그동안 공부한 바를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설 거사가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공중에 던져, 그릇이 깨지지도 않고 툄도 흘러가지 않아야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이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영인, 영조 스님은 모두 실패했는데, 부설 거사는 공중에 멈춰서 그릇이 깨지지도 않고 툄이 쏟아지지도 않았습다. 이에 따라 부설 거사는 영조, 영인 스님으로부터 속에서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공부를 했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설 거사가 영조, 영인 스님에게 했던 법문이 위의 계송입니다. 이 시를 듣고 영조, 영인 스님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가자도 수행자입니다 바른법 따라 공부하세요

목무소견무분별
(目無所見無分別)
이무소칭질사비
(耳無所聽絕是非)
세상만사도불간
(世上萬事都不看)
단간심불자귀의
(但看心佛自歸依)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면 분별이 없고 귀로 듣는 바가 없으면 사비가 끊어진다. 세상만사를 다 간섭하려 하지 말고



스님을 닮은 대나무숲에선 벽산스님.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참 부처입니다. 공부를 안해서 참 부처 노릇을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럼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간화선이라는 좋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한 순간도 화두 놓지말고 정진해

있는 그대로 지혜 덕상인 줄 알아야



벽산스님은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차별없이 법문을 들려준다.

다 했으니, 시시때때로 잊지 말고 곁에 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앉아서 쉬면서, 화두를 들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불자들이 자주 선과 교,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단지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 교를 알려면 선을 해야 합니다. 조사이륙에 '선사불심(禪是佛心)이교시 불어(敎是佛語)'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은 곧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이 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이야기 하면, 그것이 바로 교라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모두가 여래의 지혜와 부처의 덕상을 갖

진리·평화·재물의 조건없는 나눔

궁극은 제법무상의 진리 깨닫는 것

이다. 나의 배움을 남과 공유하는 것이며, 나의 안락함을 남과 더불어 반격하는 것이다. 지금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역시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조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잠시 보관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소유하며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인도의 늑야원에서 다섯 명의 비구들을 위해 처음으로 설법했을 당시에도 보시의 중요성과 실천에 대해 설파하셨다. 이후의 경전에서도 보시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새삼스레 보시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보시의 공덕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한 구절만 살펴보고자 한다. 부처님께서 코삼비의 코사라 동산에 계시 때의 일이다. 마하주나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는 것이 세간의 복을 뒤는 길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비구들에게 거주할 방과 전각을 보시하라. 새롭고 깨끗한 옷을 보시하라. 갖가지 먹을 것을 보시하라" 보시를 하면 선남자 선여인에게 큰 복을 얻게 하고, 명예를 얻으며 공덕을 얻는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갈수록 넓고 깊어

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보시에도 가치의 상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재물을 공유하는 것 보다는 법을 공유하는 것이 좋으며, 나아가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평화를 제공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세간에서 말하는 선이요 정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법무상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로 설파되고 있다.

마땅히 머무는 마음 없이 보시하려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사회의 집값대러가 되겠다는 서원, 이 세상의 밋과 소금이 되겠다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것과 우리들 자신의 결의는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한두번은 보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굳은 결의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실천공행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전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들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게 한다면 그러한 일을 위해 기꺼이 보시하는 것이다. 보시는 결국 나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다른 인간, 혹은 생명체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본지 삼일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지정보살인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세백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든 날마다 웃을 줄 알고 그리고 또 생각한다. 옛날 여승을 바깥을 돌아다니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 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많은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보급을 전하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곧 지정보살님을 모시고 법원에 법원을 거둬하며 중진 하던 중 지정보살님의 화엄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며 주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출현의 사려였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반 어르신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명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하기 때에는 인연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월의 이 건 건설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반을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려서 지정보 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평온을 어려움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이르고 괴고운 고고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 불미 소복평정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지명스님 협장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양이 주역이 있는 것 처럼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에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들을 정지해 내 쓰입니다.

1. 언어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운길 과정에서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크지 키드를 보면 상상할 허기만 해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무사태평,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회에서는 지난 1년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타로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로 쓰이는 타로카드도 오리지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복원한 카오몽판 미르세 이우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키오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선착순 24명
 - 제1단계 : 03년 11월 29일(토) ~ 30일(일)
 - 제1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일(토) ~ 4일(일)
 -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 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간이면 누구나 화제까지 오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아홉 단계라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화제까지 원력치로 능력치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단계는 우리의 운명을 단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루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회 [한글도매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진)
인터넷 www.Reiki.co.kr

◆ 전화 : 02)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계이름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사범에 따라 다름수 있음)

- 조상신과 증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울 또는 나무뿌리가 잠겨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우고 세ათ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랫등을 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찬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중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어떤 중엄신도 단병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접어줍니다. (모든 범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 이루는 분
- 병마가 가벼워지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불매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지않든 행동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력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마 150,000~180,000
2. 무 명 (역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마 180,000
3. 무명, 면 : 면 100%(역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마 140,000
4. 솜 없는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마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마 210,000
6. 골 면 :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두루마 21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이열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망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좌정한 벽산스님의 모습에서 어떠한 평상심이 엿보인다.

손상좌 진성스님이 본 벽산 스님

벽산 스님은 우리 시대의 선지식이자 교리의 대가로 추앙 받는 큰스님이라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큰스님은 크고 작은 불사에 증명법사로 추대되어 법문을 할 때 마다 불자들에게 “육십과 아집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정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출가 승려에게는 보시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신도들의 보시로 살아가는 처지를 일깨워 주시고 회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경책해주곤 합니다. 일전에는 넘치지 못한 혈관에도 불구하고 태고종림 선암사 강원에 1천만원을 쾌척하시어 몸소 나눔의 삶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큰스님은 누구에게나 <금강경>을 권합니다.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불법승 삼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깨

“회향하는 정신으로 수행” 당부 평생 금강경 수지독송하며 정진

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에서지요. 큰스님의 은사이신 해안(海眼) 선사께서도 <금강경>의 대가였습니다. 큰스님도 평생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 왔습니다. 192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벽산 큰스님은 15세에 부안 내소사에서 해안 선사를 은사로 동진출가한 이래 금강산 유점사, 양산 통도사, 남양주 봉선사, 장성 백양사, 부안 월명암 등의 강원과 선방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곳에서 만일 스님, 경봉 스님, 금오 스님, 운허 스님 등 수 많은 선지식과 강백들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제 조계종과 태고종의 오랜 분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결립없는 삶을 보여주신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후 세 차례나 태고종 전북교구 중무원장을 맡았고, 중앙종회 의장도 두차례에 걸쳐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일선에서 물러나 태고종 승정으로서 종단의 법률을 면면히 이어오고 계십니다.

나에게 한권의 경이 있으나(我有一卷經)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不因紙墨成) 한 글자도 펼치지 아니하여도(展開無一字) 형식 큰 광명을 놓는다.(常放光明)

내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하면 세상이 설사 시끄럽더라도 항시 편안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세상도 시끄럽고 어지러워지거든요.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해야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3독을 놓아버려야 불국정토가 이루어집니다. 3독은 마치 독사가 사람을 해하는 것과 같이 증상의 착한 마음을 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인자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남을 사랑하며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을 지녀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모마생전(父母未生前)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던고’.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던고. 다름없게 화두 들고 공부하십시오. 정리=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부모에게 몸 받기전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화두 참구를

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곧 근본 진리는 부처와 중생이 한 가지로 여래의 지혜와 덕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떠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동불중생(同佛衆生)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모두 있는 그대로 지혜의 덕성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나는 불자들에게 늘 <금강경>을 수지 독송할 것을 당부합니다. 부처님께서 49년동안 설한 법문 가운데 21년간 설한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사구계(四句)만 설하는 곳이라도 그곳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나 부처님을 모신 절과 같이 모든 세간의 하늘이며, 사랍이며, 아수라들이 와서 공양하거늘, 하물며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는 가장 잘 사는 법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예요. 부처님은 또,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큰 산인 수미산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경전의 사구계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들보보다 보배보다 보시하는 공덕이 크다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남을 위해 진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짧은 말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언제 어느 때 변화를 가져올 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법보시의 공덕이 가장 커서 칠보를 수미산만큼 보시해도 사구계 설한 공덕만 못해”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천호스님 (2)

늦가을 산사의 새벽은 피부가 아리도록 시리다. 이 어린 추위 속에서 스님들은 부처님을 향해 예경을 올리고 집을 나서며 출가의 그 날을 기억한다. 따뜻한 집 문을 나서 찬 바람 부는 산사로 떠나온 이들의 가슴 속에는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서원의 빛 하나씩 간직하고 있다. 그 빛은 출가자들의 일생과 함께 한다. 그러나 수행자가 스스로 발원을 잃어버릴 때 그 빛은 스스로 꺼져버리고야 만다. 배고프고 추운 자리를 버리고 배부르고 따뜻한 자리를 찾을 때 그 빛은 소리로 없이 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스님들이 아무도 꺼지 않은 새벽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그 빛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하다.

찬 바람 부는 새벽을 지나 그날 아침 천호스님은 머리를 깎았다. 가위가 먼저 긴 머리를 자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삭두질, 세수를 상징하던 머리카락을 자취도 없이 사라져 가고 출가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행자생활에 대한 불란 어린 질문 한번 없이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의 매력은 맹목적으로 일만 하는 것에 있지는 않았다. 일하는 잠깐이 햇빛이 드는 양 지남에 앉아 시집(詩集)을 읽곤 했다.

행자에게 시집이라, 웬지 맞지 않는 것만 같았다. 세수를 떠난다는 것은 문자와 감성도 함께 떠나는 것을 의미할 터. 행자에게 시집은 사치처럼만 생각되었다. 내게는 사치스러워 보이고 그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의식의 차이를 어느 날 그는 한 순간에 무너트려 버렸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내게 읽어준 한편의 시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고 만 것이다. 그 때 그 시가 무엇인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를 낭송하던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남자들의 목청 그리고 깊게 감긴 눈. 그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속적이었나를 말해 주고 있었다.

고답적이지 않지만 성실하고, 어리지만 나눔에 후했던 그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 중생을 좋아한다는 그는, 우시장에서 소 값을 잃고 울고 있는 농부를 향해 제 주머니를 다 털어 주는 이중섭 만큼의 사람에 대한 연민을 지니고



그림·문병성

상징인 삭발이 그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 처음 왔을 때처럼 삭발이 된 그 순간에도 그는 예의 그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삭발 전이나 삭발 후 똑같이 계속되는 그의 맑은 미소의 의미를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전생애 많은 시간을 출가해 본 사람처럼 삭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세간과 출세의 경계는 어찌된 그가 먼 길을 걸어 오는 동안 이미 극복되었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어찌된 길 위에서 일주문을 들어서기 전에 출가를 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도보에 대한 의미는 삭발 후 내게 그렇게 다가왔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때고 물을 끓이고 도량을 청소하면서 그의 손등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갔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밤이면 그는 터진 손등에 바셀린을 바르며 시린 행자의 나뉠을 견디어 나갔다. 그리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대중의 공양을 짓고 낮이면 누구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바쁜 행자시절 틈틈이 시집읽어 따뜻한 눈으로 세상 보는 수행자

있었다. 공양주 보살이 아플 때, 일하는 처사들이 어디 출타할 때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마른 땅을 훑고 지나가는 물결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위를 촉촉이 적시며 지났다. 부드럽고 넓은 마음은 그에게 다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따스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다.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서 출가를 어찌든 모든 사람을 보듬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사람에 대한 따뜻한 그리고 씩씩은 연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알게 되었다.

어리지만 그의 의식과 철학은 나이를 이미 넘어서 있었다. 그는 분명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일찍 깨어버린 학생이었다. 자본주의적 세상 그리고 인간의 소외에 대해서 그는 진정 논문을 흘릴 수 있는 가슴을 배워 버린 것이다. 그 가슴의 따뜻함과 눈물이 학교를 작파하고 10대의 그를 산문을 향하게 한 것이다.

상원사의 바람은 천대 그는 오히려 이 곳이 세상 보다는 따뜻하다며 아궁이에 불을 때곤 했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꽃교신들의 만남, 꽃벌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인영아게요 이영숙 원장입니다. 이 가을에 시집을 출판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목 "바람이 멈추어 선 자리" (가제: 이가영). 저자: 그대 그리울때 가을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물들고 인생을 갈망하며 그리움으로 울고 있을때 고탈똥을 입고 가는 어머니 품속으로 포근한 바다가 있었다. 가슴에 남아있는 그리움 이별의 끝에서 고통으로 서 있던 시간들은 이제 자유로와 질때다... 생략. 부록한 글 외모들과 이름을 함께 나눌수 있는 시(詩)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에서: 교보문고, 영풍문고, 여시이문(조계사역), 태평서적, 두레문고 외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연대결혼연구원에게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자도 병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력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왔다. ◆ 사지무력증이 나타났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전신이 멀어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인파선이 나타났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타났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사주분석하는 마음으로 영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생물: 시중가 10kg당 40만원급 20만원급 드려드리겠습니다.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지10kg, 왕기, 진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소) 1 Box x 60포: 20만원 2 Box x 120포: 35만원. 주 소: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련리 323번지. 연락처: (033) 563-8292, 562-2165. 성 명: 심정택 H-P 011-9242-8292. 농업계전화번호: 315024-52-012392 (예금주: 심정택)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영블, 설비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250,000원. 소리공양 증독.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쿠나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호사육임도서관내. 활용서.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 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2,500,000. ● 육임래정비법 ...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길일·길시 선정법) ... 74,000. ● 육임산수비결 ... 300,000. ● 육임추상생황비법 ... 10,000. ● 길흉상당지침록 ...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本語版 ... ¥272,000 (전 12권, 부록, 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학습서. ● 호사 육임강의록 1(희승음)·2(활용서)권 ...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CD ... 900,000. ● 육임행이상법 ...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 130,000. 호사 전국육임直講 안내 직강. ● 서울 매주 금요일 '호사육'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육' 02-523-3030 (바쿠나스님 전문학당 청통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육' 063-284-7714. ● 광주 매주 일요일 '광주육'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육'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육'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육' 053-624-8680. ● 오형 기초·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호사육임강의록 1·2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호사육'에서 '문화회원실가지도 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일금] 도서주문: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북문. [계좌] 강의신청: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